

汉语与外语接触产生的连续体。汉语与外语接触也同样会产生出各种语言变体,从而组成汉语、洋味汉语、洋泾浜、汉语式外语和外语的连续体。洋泾浜这种混合语是大家所熟知的。金斯利·博尔顿(Bolton 2006)在《中国式英语:一部社会语言学史》一书中细致地描写了洋泾浜英语和“中国式英语”(Chinese English),“中国式英语”就是汉语式外语的一种。洋味汉语是外国人使用汉语产生的一种语言变体。由这些语言变体组成的连续体可以用图4来表示。



标准中文	葡式中文	混合语（土生葡文）	中式葡文	葡文

图10

《重编〈国语辞典〉修订本》（2008）收大陆词语630个，附录中收入大陆与台湾同义或近义有差别的词语334个。

语言文字纯洁化的含义是保持语言文字的一致性和规定语言文字的正确用法。可以分为外部目标和内部目标。外部目标主要是避免和消除外来语言的影响，内部目标指实施语言文字规范标准。专门的语言文字机构在语言纯洁化方面起到重要的作用。法国的法兰西学院是最有名的语言纯洁机构。它建立于1635年，至今已有300多年。300多年来，它在法语的词汇、语法和拼写法等的规范方面做了大量的工作。由于社会越开放，语言文字接触就越频繁，如果对外来语言成分的

外来成分是语言纯洁化的对象。接受一定的外来成分既是语言使用的需要，也是保持语言活力的需要。语言借用是语言接触的必然产物，是语言交际的需要。语言纯洁是相对的，不是绝对的。绝对的语言纯洁是不存在的。中华民族共同语的发展历史是一个多民族、多方言、多言语社区融合的结果。

五、结语

文章讨论了当代中文发展过程中复杂化与简单化、分与合的倾向以及语言纯洁化、海峡两岸暨香港与澳门语言问题、海外语言变体等对当代标准中文发展方向的影响。语音文字(字形、字量)走向简单化,词汇语法走向复杂化。简单化适应社会快节奏的需要,复杂化适应社会和表达多样化的需要,两者的统一使语言的发展与社会的发展达到相对平衡。

2017年度韩国中语中文学秋季联合国际学术研讨会

11月 12日 (星期日)

15:00-16:30

语言学 分科 5-2 (202號)

主持：蘇恩希(淑明女大)

林永泽(首尔神学大学)

再談<<老乞大>>中的著字

黃信愛(首尔神学大学)

《一切經音義》中所反映的新詞和新義

姜勇仲(成均館大学)

《朱子語類考文解義》未詳條詞匯考釋

崔宰榮/安妍珍(韓國外國語大學) 《史記》、《論衡》中的能力類情態助動詞的否定形式研究

- 以“不能、不可、不得”為例 -

申杭哲(首爾大學)

作為語言學者的鄭玄 -以三禮注裡的‘讀如’為主-

再談《老乞大》中的著字
林永澤 首尔神學大學

《一切經音義》中所反映的新詞和新義

黃信愛 (首爾神學大學)

一 들어가기

東漢 말엽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쳐 隋唐시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隋唐시기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문헌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대대적인 譯經사업이 이루어졌는데, 譯經 과정에서 佛經에 나오는 용어의 음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佛經音義書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佛經音義書는 풍부한 어휘자료를 보존하고 있어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고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佛經音義書 어휘자료를 통해 당시 새롭게 출현한 어휘와 그 의미 또한 고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佛經音義書 중 《一切經音義》에 수록된 어휘들 가운데 당시에 새롭게 출현해 사용되거나 새로운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살펴보고자 한다. 《一切經音義》는 佛經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체경(一切經)에 수록되어 있는 경전의 난해한 어구나 어휘에 대해 상세하게 音義를 단 불교용어 사전으로 唐代 말엽 현응(玄應)이 저술한 25권(644년)과 혜림(慧琳)이 저술한 100권(807년) 및 희린(希麟)이 저술한 《續一切經音義》 10권(960-1127)이 있다. 《一切經音義》는 방대한 양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각종 문헌을 좌중 자료로 삼아 어휘의 어원 및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현응(玄應)의 《一切經音義》 속 어휘연구를 통해 당시 새롭게 사용된 어휘와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해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어 어휘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二. 《一切經音義》속 새로운 어휘 및 의미 고찰

●船舫

《說文》에 ‘船, 舟也.’ 段注에 “古人言舟, 漢人言船, 毛以今語釋古, 故云舟即今之船也.”라 하였다. 《莊子·漁父》에 “有漁父者, 下船而來。”와 陶潛 《桃花源記》에 “便舍船, 從口入。”라는 예문이 보인다. ‘舫’은 《說文》에 ‘船師也.’라 하고, 《爾雅》에 ‘舫, 舟也.’, 《廣雅》에 ‘舫, 船也.’라 하여 ‘작은 배’를 가리킨다. 《通俗文》에 ‘連舟曰舫.’이라 하고, 《史記·張儀傳》에 ‘舫船載卒.’라는 예문이 보인다.

위 예문을 통해 ‘船’과 ‘舫’은 모두 ‘배’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船舫’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 ‘선박’을 가리키고, 唐宋代 예문에 많이 보인다.

[例1] “太元十七年六月甲寅, 濤水入石頭, 毀大航, 漂船舫, 有死者。”(《宋書·五行志四》)

[例2] “早晚東歸來下峽, 穩乘船舫過瞿塘。”(唐·白居易·《登西樓憶行簡》詩)

1) 《일체경음의》 속 소멸어휘 연구(2015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참조



[例3]“契丹南侵，上幸澶淵，詔緣河斷橋梁，毀船舫，稽緩者論以軍法。”(《宋史·王濟傳》)

‘船舫’은 唐宋代 문헌에 주로 보이는 어휘로 기존에 ‘배’를 가리키던 ‘船’과 ‘舫’의 두 어휘가 결합하여 새로운 이음질 어휘를 구성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繫念

繫念은 ‘염려하다, 근심하다, 그리워하다’의 의미로 생성시기는 唐代로 추정되며, 宋代 첫 예문이 보인다.

[例4]“自得袍之后，不衣而出，则心系念。”(宋·郭象·《睽车续志》·卷六)

[例5]“七十后即一切名根系念，尽与勅断，以保天年可也。”(明·谢肇淛·《五杂俎》)

[例6]“奈痴珠系念老母在危急中，恨不能插翅南飞，那有心情流连风景？”(《花月痕》)

[例7]“他又感觉特别不安，不知道几天来醒里梦里系念着的可怜的宝贝到底有没有着落。”(叶圣陶《未厌集·夜》)

[例8]“我对于这店本没有甚么可以值得系念之事：只不过在平时每当追怀往事的时候，也总联想起它。”(许志行《师弟》/그리워하다)

‘繫念’은 근대시기 생겨난 어휘로 현대까지 이어지는 계승어휘로 볼 수 있다.

●村屯

《字書》에 “屯，亦村也.”라 하고, 《廣雅》에 “屯，聚也.”라 하여, ‘屯’은 ‘마을, 동네, 촌락’을 의미한다. ‘마을, 촌락’을 의미하는 ‘村屯’은 同義語素가 결합된 어휘로 근대에 생겨난 어휘로 보여진다. 구전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몽고족들이 물과 초원을 따라 유목생활을 할 때에, 그 지역의 물과 풀이 좋으면 바로 몽고가옥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한두 집 또는 몇 집이 같이 모여 사는 곳을 일컬어 ‘村屯’이라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²⁾ ‘村屯’은 문헌상에 용례가 많이 보이지 않는데, 《清朝野史》에 보면 “兩國開戰後，凡戰地縣內之村屯城鎮，免遭兵禍.”(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한 후에는 대체로 전쟁터 안 마을과 도시들은 전쟁의 피해를 면하게 한다.)이란 예문이 보인다. ‘마을, 촌락’을 의미하는 ‘村屯’은 근대시기에 생겨나 현대에 오면서 사용량이 증가한다.

●爲作

‘爲’와 ‘僞’는 通假字로 《禮記·檀弓下》에 보면 “夫子爲弗聞也者而過之.”(공자가 못들을 체하고 지나가다.)라 하여 ‘거짓이나 가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헌상에 ‘爲作’는 ‘조작하다, 고의로 꾸며내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例9]“豕俛仰嚙呿(yōuyī)，爲作容聲，司原愈益珍之.”(漢王符《潛夫論·賢難》)(돼지가 사람을 쳐다보며 모습과 소리를 짓자 사원은 더욱 진귀하게 여겼다.)

[例10]“其文辭類《莊子》，而尤質厚，少爲作.”(唐柳宗元《辯》)(그런 문사류의 《장자》는 더욱 소박하고 담백하여 억지로 꾸며냄이 적다.)

²⁾ 很早以前，蒙古族过着逐水草而居的游牧生活，哪个地方的水肥草壮就搭起毡房居住在那里。有一两户或几户在一起定居的地方称为村屯。(Baidu百科 참조)



[例11]“那婆娘打扮來便似女獠，全不似好人家苗條，上墳處說不盡喬爲作。”(元無名氏 《替殺妻》)(그 아내는 여자원숭이 같이 꾸몄으나, 사람의 몸매와 같지 않자 무덤에 올라)

[例9]~[例11]을 보면 ‘조작하거나 고의로 꾸며내다’의 의미를 지닌 ‘爲作’는 漢代 용례가 보이고 唐代에 이어 元代에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爲作’는 ‘가식적으로 하는 행위(造作, 倣作)’외에 ‘일반적인 행위(作爲, 行爲)’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例12]吾誓得佛，普行此願，一切恐懼，爲作大安。(당(唐)의 보리유지(菩提流志)가 번역한 <대보적경 大寶積經>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두루 이러한 서원 행하고 두려움 많은 중생 위하여 편안한 의지처 되리라.)

[例 13]冬月無複衣，戴顓聞而迎之，爲作衣服，並與錢一萬。《南史》³⁾ (겨울에 두꺼운 옷이 없는 걸 戴顓가 듣고서 그를 데려와 옷을 해주고 일만금을 주었다.)

[例 14]“使佛生於中國，則其爲作也必異於是。”(唐 李翱 《去佛齋論》) (부처가 중국에서 난 즉 그 행함 또한 반드시 이와는 다르다.)

[例15]“風俗習慣道德宗教趣味好尚言語暨其他爲作，俱欲去上下賢不肖之間，以大歸乎無差別。”(魯迅 《墳·文化偏至論》)

[例 12]~[例 15]을 보면 ‘爲作’가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를 지닌 ‘爲作’는 唐代 문헌에 용례가 보이고, 중화민국 초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爲作’는 문헌상에서 ‘가식적인 행위’와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두 의미는 생성시기와 사용시기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식적인 행위’의 ‘爲作’는 ‘春秋時代’ 예문을 시작으로 漢代, 唐代를 거쳐 元代에 이르기까지 예문이 보인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僞作’로 쓰이며 ‘어떤 물건을 속여서 진짜처럼 만들거나 그런 작품’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를 지닌 ‘爲作’는 [例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唐代에 처음 용례가 보인다. 문헌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행위’의 ‘爲作’는 唐代에 많이 사용되고 중화민국 초기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로 오면서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는 소실되고⁴⁾ ‘가식적인 행위’의 의미만 남게 된다. 이 ‘가식적인 행위’의 의미는 다시 파생되어 ‘거짓으로 만들거나 그런 작품’을 의미하는 어휘로 사용된다.

●晨朝

‘晨朝’는 본래 ‘아침에 배알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史記·項羽本紀》에 보면 “項羽晨朝上將軍宋義，即其帳中斬宋義頭。”(항우가 아침에 상장군 송의를 배알하고, 바로 그 군막에서 송의의 머리를 베었다.)라 하여 ‘晨朝’가 ‘아침에 알현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晨朝’는 隋唐代에 이르러 ‘새벽녘, 이른 아침’의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된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例16]“欲觀慈顏，莫由審察，必於晨朝持大明鏡，引光內照，乃觀靈相。”(唐玄奘《大唐西域記·

³⁾ 《南史》: 중국 당나라의 이연수가 지은, 남조의 남송, 제, 양, 진 네 나라의 역사책.

⁴⁾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를 지닌 ‘爲作’는 북대 현대한어 語料庫에 예문이 보이지 않는다.

[例16]~[例18]을 통해 ‘晨朝’가 唐宋代에 ‘이른 아침’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晨朝’는 唐宋代 문헌에 용례가 많이 보이나 후대로 오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북대 현대한어 語料庫에 보면 9차례 출현하나 모두 근대시기(隋唐代)의 예문을 인용한 것으로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볼 수 있다.

*戰掉

[例21]“澤清呼猿捧酒跪送客，猿猱寧甚，客戰掉，逡巡不敢取。”（《明史·劉澤清傳》）

[例19]~[例21]의 예문을 통해 ‘戰掉’은 唐代부터 清代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戰掉’은 북대 현대한어 語料庫에는 보이지 않는데, 근대시기에 생겨난 어휘로 근대 말까지 사용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주자어류고문해의》 미상조 어휘풀이

《朱子語類考文解義》未詳條詞匯考釋

姜勇仲 (成均館大學)

[目次]

1. 들어가는 말
 2. 《考文解義》 ‘未詳’조의 분포
 3. 글자나 단어의 뜻 관련 미상조
 4. 소결
- <參考文獻>

1.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의 경학은 크게 경서석의와 어록석의로 대별할 수 있다. 경서석의란 《13경》 위주의 경서에 대해 주석을 진행한 것이고, 어록석의는 《朱子語類》, 《朱子文集》, 《心經附註》 등의 송유 이래의 어록에 주석을 한 것이다. 앞에서 든 어록의 대표저자인 《朱子語類》, 《朱子文集》, 《心經附註》 등에 대한 주석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기 드문 우리의 학문 전통을 잘 살린 분야이자 높은 연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朱子語類考文解義》(이하 《考文解義》라 칭함)는 방대한 분량의 《朱子語類》를 대상으로 주석을 진행하여 조선시대 어록석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考文解義》의 다양한 주석 중 난해한 文義나 語句에 “알지 못하겠다”는 의미의 未詳條 주석의 출현양상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난해 어휘의 용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考文解義》 ‘未詳’조의 분포

본장에서는 졸고(2016)에서 밝힌 《考文解義》 ‘未詳’조의 분포를 소개하고자 한다.¹⁾

2.1. 글자의 음:

(1) 55:30:1313 問: “‘振德’是施惠之意否?” 曰: “是. 然不是財惠之惠, 只是施之以教化, 上文匡·直·輔·翼等事是也. 彼既自得之, 復從而教之. ‘放勛曰’, ‘曰’字不當, 音驛.” 瞢(“‘덕을 진작 시킨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 아닙니까?”라고 여쭙자, 선생께서는 “그렇다. 그러나 재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다만 교화로써 베푸는 것이다. 위의 문장의 匡·直·輔·翼 등과 같은 일이 이것이다. 저들이 이미 스스로 얻어 다시 따르면 그들을 가르친다. ‘放勛曰’에서 ‘曰’자는 맞지 않고 ‘驛’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셨다.)²⁾

1) 출처: 졸고, <《朱子語類考文解義》 ‘未詳’조 주석의 분포와 특징>, 《중국어언어연구》 제 65집, 2016. 제 4장 2절.

2) 《朱子語類》의 원문과 번역이다. 55:30:1313는 각각 제55권, 33단락, 중화서국본 1313쪽을 나타낸다.

【問振德，不當音駟】謂‘曰’字不當也，音駟。未詳。（‘曰’자는 맞지 않고, 음은 ‘駟’ 이다는 것이다. 잘 모르겠다.)³⁾

전체 《考文解義》에서 음에 관한 주로는 이 조목 밖에 없다. 다만 주석자가 참고로 한 텍스트와 현재의 통행본인 중화서국본과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 분명히 처리하기 힘들다.

2.2. 글자나 단어의 뜻

(2)3:80:53~54 論鬼神之事,漢卿云: “後來也疏脫.” 賀孫.(귀신에 관한 일을 논하는데..... 한경이 “뒤에 가서는 역시 소홀히 했다.” 고 했다.)

【論鬼神之事，數萬來頭】.....【疎脫】未詳。疑謂其符無驗，不得道也。(잘 모르겠다. 아마도 그 부적에 효험이 없어 도를 얻지 못함을 말하는 것 같다.)

원문의 ‘疏脫’ 이 주석본에는 ‘疎脫’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통용하는 자형이다. 주석자는 ‘알지 못하겠다’ 고 하였으나 문맥상 대체적인 의미를 추정하여 풀이하고 있다.

2.3. 특정 구절이나 문장

(3)1:15:4 徐問: “天地未判時，下面許多都已有否?” 曰: “只是都有此理，天地生物千萬年，古今只不離許多物.” 淳.(서우가 묻기를 “하늘과 땅이 나뉘지기 전에 그 아래에 많은 것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하니, “단지 다 이理가 있기 때문에 천지의 생물이 오랜 시간을 지내왔으니 예나 지금이나 다만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셨다.)

【徐問，下面許多】此文未明，疑指土石水火之屬。(이 문장은 알지 못하겠다. 아마도 土石水火 따위를 가리키는 것 같다.)

(3)에서는 ‘下面許多’ 의 의미에 대해 未明 이라고 주석하여 특정 구절이나 문장에 대해 ‘未詳’ 으로 처리한 것이다.

2.4. 단락이나 경전의 대의

(4)20:113:471 先生嘗曰: “‘仁者心之德，愛之理.’ 論孟中有專就‘心之德’上說者，如‘克己復禮’，‘承祭·見賓’，與答樊遲‘居處恭’，‘仁人心也’之類。有就‘愛之理’上說者，如‘孝弟爲仁之本’，與‘愛人’，‘惻隱之心’之類。” 過續與朋友講此，因曰: “就人心之德說者，有是‘心之德’.” 陳廉夫云: “如此轉語方得.” 先生嘗說: “如有所譽者，其有所試矣.”過.(선생께서 일찍이 “‘인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이다.’, 《논어》와 《맹자》에서는 전적으로 ‘마음의 덕’에서 말한 것은 ‘克己復禮’，‘承祭·見賓’과 번지에게 답한 ‘거처함에 공손히 하라’，‘인은 사람의 마음이다’와 같은 것들이다. ‘사랑의 이치이다’에 대해 말한 것은 ‘효와 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측은지심’과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셨다. 제(過)가 이어서 친구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이어 말하기를 “사람 마음의 덕에 대해 말한 것은 ‘마음의 덕’이 있다.”라고 했다. 진림부는 “이처럼 말을 돌려가며 해야 된다.”고 했다. 선생께서 일찍이 “칭찬을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시험 삼아 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다.....)

【先生嘗曰 有是心之德】言就心之德說者，非謂此是心之德也，乃其用功而有此心德耳。此乃轉語，故下文陳廉夫云然。（‘마음의 덕’에 대해 말한 것은 이것이 마음의 덕이 아니라 힘써서 이 마음의 덕을 가지는 것을 말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轉語의 의미이므로 아래의 진림부도 역시 그렇게 말했다.）【先生嘗說】此下所云，及楊至之一段，疑與上文轉語之義，相承爲說，而今未見其然。當考。（이 아래에서 말한 것과 양지지의 한 단락은 아마도 위 문장의 轉語의 의미로 서로 이어서 말한 것이나 지금 그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마땅히 고찰해야 한다.）

이 예에서는 구나 문장의 범위가 아니라 단락이나 경전의 의리에 대한 주석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반드시 고구(考究)해야 한다고 밝힌 경우에 속한다.

3) 《考文解義》의 해당 주석과 번역이다.

(9) 36:50 問：“程子云：‘夫子免於匡人之圍，亦苟脫也。’此言何謂？”曰：“謂當時或爲匡人所殺，亦無十成。”某云：“夫子自言‘匡人其如予何’，程子謂‘知其必不能違天害己’，何故卻復有此說？”曰：“理固如是，事則不可知。”必大

(10) 037-49:.....僩問：“‘子莫執中。’程子之解經便是權，則權字又似海說。如云‘時措之宜’，事事皆有自然之中，則似事事皆用權。以孟子‘嫂溺援之以手’言之，則‘權’字須有別。”曰：“‘執中無權’，這‘權’字稍輕，可以如此說，‘嫂溺援之以手’之權，這‘權’字卻又重，亦有深淺也。”僩

(11) 52:137 或問：“人有生之初，理與氣本俱有。後來欲動情流，既失其理，而遂喪其氣。集義，則可以復其性而氣自全。”曰：“人只怕人說氣不是本來有底，須要說人生有此氣。孟子只說‘其爲氣也，至大至剛，以直養而無害’，又說‘是集義所生者’，自不必添頭上一截說。呂子約亦是如此數摺價說不了。某直敢說，人生時無浩然之氣，只是有那氣質昏濁頹塌之氣。這浩然之氣，方是養得恁地。孟子只謂此是‘集義所生’，未須別說。若只管謂氣與道義，皆是我本來有底；少間要行一步，又怕失了道義，又怕失了氣，恰似兩隻脚併著一隻袴，要東又牽了西，要西又牽了東，更行不得。”胡泳。

【或問人，頭上一截】謂根本一節。此言人嫌說氣非本有，故必就根本上說，以爲氣乃本有。然氣由義生，不必添說本有也。然此說與《集注》不同，似是未定之論也。【數摺價】摺，折也，疊也。初曰有，又曰復，是爲數重折轉連疊而說也。價，語錄，未詳，蓋如折價之義。

3장에서 보이는 대로 (7)의 “擦”, “當對”; (8)의 “折本”; (9)의 “十成”; (10)의 “海說”; (11)의 “價” 등은 2장에서 소개한 2.2의 글자나 단어의 뜻 관련 미상조이며, 이들 성분에 대한 고석은 반드시 필요하며 연구사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1. 原典 및 《朱子語類》번역서

- (宋)黎靖德 編，王聖賢 點校本，《朱子語類》，北京：中華書局，1994。
(宋)程顥，程頤撰，二程遺書/二程外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
李宜哲，《朱子語類考文解義》(규장각 소장본 원본)，1774(영조 50년)。
——，《朱子語類考文解義》上・下，民族文化文庫，2001。
李宜哲著 이영호・정선로 主編，《朱子語類考文解義》，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허탁 外역，《朱子語類》，도서출판 창계，1998。
이주행 外역，《朱子語類》，소나무，2001。
《語錄解》，《韓國文化》，第4輯 韓國文化研究所 1993 印本。
2. 研究書，論文
- 賈璐，《朱熹訓詁研究》，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2011。
羅竹風 主編，《漢語大詞典》，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1993。
朴甲洙，〈語錄解에 대하여〉，《李應百博士回甲紀念論文集》，寶晉齋 1983。
餘行達，〈《說文段注》“未詳”、“未聞”字義試析〉，古籍研究，1996年01期
王嘉琦，李玉平，〈鄭玄《論語注》訓詁術語系考論〉，唐山師範學院學報，2014年06期
王明春，《高誘訓詁術語研究》，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4。
汪耀南，《注釋學綱要》，語文出版社，1997(박재건역，《문자교감 그리고 注釋의 異名과 釋名》，태일사，2001)



- 이기동, 《詩經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趙小剛, 《《四書章句集注》訓詁研究》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陳榮捷, 《朱子門人》,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2.
- 胡適, 〈《朱子語類》的歷史〉, 《朱子語類》, 臺北: 正中書局, 1970.
- 胡進, 〈試析朱熹《論語集注》中的訓詁〉, 安徽水利水電職業技術學院學報, 2006年04期
- 강용중, 《朱子語錄解研究》,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5.
- _____, 《朱子語類詞彙研究》, 中國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_____,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朱子語類》의 특징〉, 《중국문학연구》 제38집, 한국중문학회, 2009.
- _____, 〈《朱子語類考文解義》 주석 체제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57집, 2014.
- _____, 〈《朱子語類考文解義》 ‘未詳’ 조 주석의 분포와 특징〉, 《중국언어연구》 제 65집, 2016.

《史记》、《论衡》中的能力类情态助动词的否定形式研究

- 以“不能、不可、不得”为例 -

崔宰荣·安妍珍(韩国外大)

一、引言

现代汉语中表示动力情态(能力)和认识情态的情态助动词“能”的否定形式“不能”除了表示“动力情态(能力)”之外,还表示“认识情态、道义情态”,这种情况在古代汉语中也可以见到。例如:

(1)a. 因遂吞之,腹有疾而不能食。(《论衡·福虚篇》)[能力]

b. 以全齐之兵,无天下之规,与聊城共据期年之敝,则臣见公之不能得也。(《史记·鲁仲

连邹阳列传第二十三》)[认识]

c. 弘为丞相,乃言上曰:“右内史界部中多贵人宗室,难治,非素重臣不能任,请徙黯为右内史。”(《史记·汲郑列传第六十》)[道义-禁止]

众所周知,世界诸多语言中的情态助动词具有的显著特点之一是多义性(polysemy),另一个特点是肯定形式和否定形式之间的不对称现象。Bybee et

al. (1994/2010: 332)指出,“能力”义可以引申出表示“道义(许可)”义,“能力”义还可以引申出表示“认识”义。这种情态助动词表现出的多义性常常是导致句子产生歧义的原因,并且产生歧义义项之间没有明显的界线。

目前为止,对于汉语情态助动词的不对称现象研究还比较薄弱,主要研究有相原茂(2000)、鲁晓琨(2004)、褚智歆(2008)、박재승(2011)、徐丹(2004)、최재영·김동은(2016)、최재영·안연진(2014、2015a、2015b、2017)等,而且对于动力情态(能力)助动词的界定问题讨论的研究更罕见。特别是从历时角度对这种现象的研究非常缺少。为了能对汉语情态助动词作出的全面地理解,对于个别情态助动词的否定形式的形成和演变过程的研究是十分必要的。本文从情态的角度出发,首先对于《史记》、《论衡》里出现的“不能、不可、不得”¹⁾进行分析和考察,试图揭示它们的划分标准和使用情况。

二、划分标准

2.1 动力情态(能力)与认识情态的划分标准

关于动力情态(能力)与认识情态的界定问题讨论的研究罕见。Bybee et al. (1994/2010: 332)提出,由动力情态(能力)语法化为认识情态的路径是一种跨语言现象,曾锦程(2009)通过历时文献资料主张“能”是由动力情态(能力)语法化为认识情态的。正如前人所述,表示动力情态(能力)的“能”语法化为认识情态助动词,因此它们之间的界线不好区分。

朱德熙(1982/2010: 62, 63)、李明(2001)、최재영·김동은(2016)等指,情态助动词“能”不仅表示动力情态(能力),还表示认知情态。值得注意的现象是“能”的否定形式“不能”也不仅表示动力情态(能力)还表示认识情态,甚至表示道义情态。从标记理论的观点来看,肯定句、现实句是无标记项,而否定句、非现实句是有标记项。²⁾相对来讲,在这两种标记项当中有标记项不易理解和习得,那么既表示非现实又表示否定的“助动词的否定形式”难度比较高。在这种情况下,很难区分“不能、不可、不得”属于动力情态(能力)范畴,还是属于认识情态范畴。因此,本文试图按照以下划分标准进行分析。

¹⁾ 现代汉语中情态助动词“得”的肯定形式和否定形式与动力情态(能力)的范畴无关。而太田辰夫(1987/2005: 184-187)和李明(2001)指出过古代汉语中“不得”用于动力情态(能力)和认识情态。本文也同意这种观点,将对“不得”进行分析。另外,“不会”在《史记》、《论衡》里没有情态助动词的用例,而“不可以”的用例极为罕见,因此“不会”和“不可以”不放在研究范围之内。

²⁾ 参见沈家炫(1999: 43、106)。

【表1】动力情态(能力)与认识情态的划分标准³⁾

划分标准 \ 分类			动力情态(能力)	认识情态
主语的人称			没有限制	主要使用第二人称和第三人称
动词的自主性			[+自主性]	[±自主性]
副词的种类			表示已然的时间副词 (“曾、已”等) 表示结果的语气副词 (“终、竟”等)	情态副词 (“必、恐、将”等)
事件的发生			已然	未然
			现在： 只有根据具体语境里才能确定动力情态(能力)还是认识情态	
复句里的意义关系			在因果句里表示能力的否定意义 (“不能~, 故~”、 “故~, 不能~”)	在条件句里表示认识的否定意义 (“如~, 则~”)
条件所在 的位置	主语内部	构成义素	[+内部条件]、[+施事者]、 [+行为对象]、[+完成的可能性]	[+内部条件]、[±施事者]、 [+行为对象]、[±完成的可能性]
	主语外部- 一般条件	构成义素	[-内部条件]、[+施事者]、 [+行为对象]、[+完成的可能性]	[-内部条件]、[±施事者]、 [+行为对象]、[±完成的可能性]
		条件的 种类	客观条件(科学性、绝对性)	主观条件(非科学性、相对性)- 含有助动词的句子充当表示看法的 动词(“见、想”等)的宾语
			如果外部条件(一般条件)可以看作主观条件(非科学性、相对性), 根据上下句判断归为动力情态(能力)还是认识情态	

2.2 动力情态(能力)与道义情态的划分标准

如上所述,“不能”除了表示动力情态(能力)之外,还表示道义情态(禁止),对于这两种情态之间的划分标准的讨论也很难找到,主要有최재영·김동은(2016)和최재영·안연진(2017)等。下面【表2】是动力情态(能力)与道义情态的划分标准。

【表2】动力情态(能力)与道义情态的划分标准

划分标准 \ 分类			动力情态(能力)	道义情态(禁止)
说话人的身份			具备社会资格的人、 不具备社会资格的人都可以使用	具备社会资格的人(典型情况) 使用委婉的说法时-不具备社会资格的人(非典型情况)
主语的人称			没有限制	主要使用第二人称、泛称 (不能出现第一人称)
动词的自主性			[+自主性]	[±自主性]
动词的语义色彩			没有限制 (主要使用中性义)	中性义、贬义 (主要使用贬义, 不能使用褒义)
副词的种类			表示已然的时间副词 (“曾、已”等) 表示结果的语气副词	强禁止语气的副词 (“切、万、断、千万”等)

3) 【表1】和【表2】的划分标准是在최재영·김동은(2016)和최재영·안연진(2017)的基础上进行修改和补充而成的。

三、三种能力类情态助动词的否定形式分析

① 动力情态(能力)

(3) 圣人之言，**不能**尽解。（《论衡·问孔篇》）

例(2)和(3)中“完成某一个动作的条件”存在于句子主语的内部(人的“身体能力”-例2, 人的“认知能力”-例3), 而例(4)中“完成某一个动作的条件”存在于句子主语的外部(困于阻险而不能进)。

(6) 吴王身有内病，不能朝请二十余年，尝患见疑，无以自白，今胁肩累足，犹惧不见释。（《史记·吴王濞列传第四十六》）

例(5)中表示根据从过去到现在的情况判断时“没办法和对方亲密相处”的意思,而例(6)中的“不能朝请二十餘年”是已然的情况。

(8) 然鲁**终不能**用孔子，孔子亦不求仕。（《史记·孔子世家第十七》）

(9) 酒酣，乃持券如前合之，**能**与息者，与为期；贫**不能**与息者，取其券而烧之。（《史记·孟尝君列传第十五》）

(10) 太史公为乃非恬之为名将，**不能**以强谏，**故**致此祸。（《论衡·祸虚篇》）

(11) 楚以**故不能**过荥阳而西。(《史记·项羽本纪第七》)

例(7)和(8)中“不能”和表示已然的时间副词“曾”、表示结果的语气副词“终”一起使用,加强能力的语气。例(9)中“不能”与“能”正反对举。例(10)和(11)中“不能”在因果句(“不能~,故~”、“故不能~”)里使用。

(12) 如地不能哭，则天亦不能怒。（《论衡·雷虚篇》）

(13)布之初反，谓其将曰：“上老矣，厌兵，**必不能**来。”。（《史记·黥布列传第三十一》）

(14)…… 今又接以西夷，百姓力屈，**恐不能**卒業，此亦使者之累也，窃为左右患之。（《史记·西南夷列传》）

第五十六》)

(15) 平曰：“今兵不如楚精，而将不能及，而举兵攻之，是趣之战也，窃为陛下危之。”（《史记·陈丞相世家第二十六》）

例(12)中“不能”出现于条件句（“如～，则～”）里，而例(13)～(15)中“不能”和情态副词“必、恐、将”一起使用，加强认识的语气。

③ 道义情态(禁止)

(16) 以孔子为君，颜渊为臣，尚不能谴告，况以老子为君，文子为臣乎！（《论衡·自然篇》）

(17) 时当治，恶人不能乱。（《论衡·治期篇》）

例(16)、(17)中“不能”所带的动词带有贬义，例如：“谴告、乱”等。

3.2 不可

① 动力情态(能力)

(18) 至于序尚书则略，无年月；或颇有，然多阙，不可录。（《史记·三代世表第一》）

(19) 太仓之粟陈陈相因，充溢露积于外，至腐败不可食。（《史记·平准书第八》）

(20) 河决不可复壅，鱼烂不可复全。（《史记·赵世家第十三》）

(21) 原过从，后，至于托平驿，见三人，自带以上可见，自带以下不可见，……。（《论衡·纪妖篇》）

例(18)～(20)中“完成某一个动作的条件”存在于句子主语的外部，而例(21)中“不可”与“可”正反对举，“完成某一个动作的条件”存在于句子主语的内部。

② 认识情态

(22) 大王不听臣，秦下甲士而东伐，虽欲事秦，不可得矣。（《史记·张仪列传第十》）

(23) 气不可灭，命不可长。（《论衡·变虚篇》）

(24) 农商殊业，所畜之货，货不可同，计其精粗，量其多少，……。（《论衡·量知篇》）

例(22)～(24)中“不可”出现于“未然”的情况，而例(23)和(24)中“不可”的主语为无生命的，即[-施事者]。

③ 道义情态(禁止)

(25) 孔子曰：“……臣不可言君亲之恶，为讳者，礼也。”（《史记·伍子胥列传第六》）

(26) 然其序君臣父子之礼，列夫妇长幼之别，不可易也。（《史记·货殖列传第六十九》）

(27) 且夫秦以牛田之水通粮蚕食，上乘倍战者，裂上国之地，其政行，不可与为难，必勿受也。（《史记·赵世家第十三》）

例(25)～(27)中的“不可”均出现于“君臣之理、父子之礼、夫妻之理”等儒教思想的内容。可见，提到某种道理的重要性时使用“不可”。例(27)中“不可”和禁止词“勿”出现于上下句中，出现语境完全相同。

3.3 不得

① 动力情态(能力)

(28) 有兵守关，不得入。（《史记·项羽本纪第七》）

(29) 于是虬蝨竟不得归韩。（《史记·韩世家第十五》）

(30) 壶遂曰：“孔子之时，上无明君，下不得任用，故作春秋，垂空文以断礼义，……

。”（《史记·货殖列传第六十九》）

例(28)中“不得”在客观条件下使用，例(29)中“不得”和表示结果的语气副词“竟”一起使用，加强能力的语气。例(30)中“不得”出现于已然情况的因果句（“不得～，故～”）里。

② 认识情态

(31) 如审运行地中，凿地一丈，转见水源，天行地中，出入水中乎，如北方低下不平，是则九川北注，不得盈满也。（《论衡·说日篇》）

(32) 使当今说道深于孔、墨，名不得与之同；（《论衡·齐世篇》）

(33) 天之将丧斯文也，后死者不得与于斯文也。（《史记·孔子世家第十七》）

例(31)中“不得”出现于未然情况的条件句（“如～，则～”）里，而例(32)和(33)中“不得”出现于未然情况里。

③ 道义情态(禁止)

(34) 匈奴法，汉使非去节而以墨黥其面者不得入穹庐。（《史记·韩长孺列传第四十八》）

(35) 孝惠、高后时，为天下初定，复弛商贾之律，然市井之子孙亦不得仕宦为吏。（《史记·河渠书第七》）

(36) 钱既多，而令天下非三官钱不得行，诸郡国所前铸钱皆废销之，输其铜三官。（《史记·平准书第八》）

(37) 生于中国，长于山林之间，性廉见希，人不得害也，则谓之思虑深，避害远矣。（《论衡·指瑞篇》）

例(34)～(37)中“不得”出现于“法律、条律、规定”中，所表达的强制性较强，其禁止的语气也比较强烈。

四、结语

本文对于汉代的文献《史记》、《论衡》里出现的“不能、不可、不得”的动力情态(能力)与认识情态以及道义情态(禁止)的划分标准进行探讨，通过它们的使用和出现情况进行大致的分析和研究。研究结果如下：

“不能、不可、不得”多用于动力情态(能力)，也用于道义情态(禁止)和认识情态。它们在汉代很少用于认识情态。汉代“不能”多用于动力情态(能力)、很少用于道义情态，可见“不能”不是道义情态(禁止)的主要表现形式。“不可”在表达某种“道理”、“劝告”的句子(禁止)里出现。“不得”主要出现于“法律、条律、规定”里，其禁止的语气比较强烈。现代汉语“能”和“可(以)”的肯定形式和否定形式多用于动力情态(能力)，“不得”主要用于道义情态(禁止)，通过以上研究发现这种分布早已在汉代出现。另外，“不得”在汉代可以表达动力情态(能力)和认识情态以及道义情态(禁止)，但在现代汉语中只能表达道义情态(禁止)。

1. 들어가며

본 발표문은 漢代 경학자로 유명한 鄭玄(127-200)에 대해 언어학자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성과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鄭玄은 後漢의 훈고학자로서 경전에 전반적인 주를 붙인 학자로서 許慎과 더불어 漢代 훈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鄭玄에 대한 여러 평가들을 종합하면 漢代 학술의 집대성이라는 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평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언어학자적인 면모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언어학이 철학, 경학 등에 종속된 면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鄭玄의 주장이나 분석 방식 속에 포함된 언어학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鄭玄이 언어학자임을 드러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三禮注 내에서 '讀如'라는 술어로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鄭玄의 언어학자적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2. 三禮注에서의 讀如의 역할과 설명 방식

三禮注라는 것은 《周禮》, 《儀禮》, 《禮記》 등 세 가지 예(禮)와 관련한 경전에 대해 주석을 붙인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경전에 대해 鄭玄은 주석을 통해 경전을 이해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주석 중에서 '讀如'로 설명한 내용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면서 이후 전개될 '讀如'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1 讀如란?

讀如는 反切이 나타나기 이전 음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甲의 글자의 잘 알지 못하는 음을 乙로 표시하는 것으로, 甲讀如乙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甲과 乙은 대부분 同音關係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甲이라는 글자를 乙이라는 음으로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許慎의 《說文解字》에서 음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讀若'과 유사하다.¹⁾ 이는 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서 譬況法에 해당한다. 다른 譬況 방식과 비교하면 당시의 다른 비항에 비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음 표시 방식이라 할 수 있다.²⁾

讀如는 직접적으로 음을 가리는 直音法에 해당하는 방식인 '音甲'과 비교할 수 있다. 음을 지칭할 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音甲은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음을 지칭할 때 쓸 수 있다면 讀如는 여타 비항법과 관련이 있으면서 해당 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못할 때, 그리고 音甲에서 의미적 유관성을 지향한다고 하면 讀如는 그러한 점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통해 '音甲'에 대한 선행으로서 '讀如'가 등장했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鄭玄은 '音甲'의 표현을 讀如로 자신의 술어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2.2. 讀如의 설명방식 내에서 直音法과 동일하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讀如의 설명방식

2.2.1 直音法과 동일

이 방식은 해당 글자에 부가적 설명이 전혀 추가되지 않으면서 글자의 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讀如는 실질적으로 音甲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如와 若는 互訓 관계이다. 《經傳釋詞》卷七 '如': "廣雅曰: 如, 若也。常語。", '若': "考工記梓人注曰: 若, 如也。常語。" 참조.

2) 《春秋公羊傳》莊公 二十八年의 '伐'에 대한 何休의 注: "伐人者爲客, 讀伐長言之, 齊人語也。見伐者爲主, 讀伐短言之, 齊人語也。"(伐人者爲客일 때의 伐은 길게 읽는다. 제(齊)나라 사람들의 말이다. 見伐者爲主일 때의 伐은 짧게 읽는다. 제(齊)나라 사람들의 말이다.)

《禮記·少儀》：“羞濡魚者進尾，冬右腴，夏右鰭，祭臠。”(젓은 고기를 바칠 때에는 꼬리를 앞으로 해서 바치고, 겨울에는 배 쪽을 손님의 오른 쪽으로, 여름에는 등 쪽을 손님의 오른 쪽으로 한다. 제사 때에는 물고기 배 아래쪽 고기를 올린다.) 에 대한 鄭玄의 注: “臠讀如臠。”

이는 臠에 두 가지 음이 있는데, 이 중 臠과 음이 유사하고 성조가 동일한 것을 가지고서 경전에 나타나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經典釋文》에서도 이러한 鄭玄注의 지적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³⁾ 《經典釋文》에서도 鄭玄의 ‘讀如臠’를 ‘音臠’로 제시하듯이 讀如와 직음법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에는 臠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인 冠⁴⁾과는 상관이 없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발음만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讀如는 직음법에서 음을 제시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에서 조금 어긋나는 점 때문에 후대 교정의 대상이 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禮記·月令》：“其器園以閔。”(그 그릇은 둥글고 안 쪽이 넓다.) 에 대한 鄭玄의 주: “閔讀如紼。”

앞에서의 설명 방식에 의거하면 鄭玄은 閔을 紼의 음으로 읽는다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둘 사이의 발음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閔과 紼은 《廣韻》을 기준으로 해도 동일한 발음이고, 상고음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鄭張尚芳의 상고음 체계에 따르면 *gʷm:ŋ이다.) 이러한 이유로 段玉裁는 이 때의 如를 爲로 고쳐서 읽어, 훈석자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였다.⁵⁾ 실제로 해당 구절에서 피훈석자의 의미는 훈석자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讀如의 쓰임이 평소와 상이하다는 점을 통해 해당 구절을 교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讀如의 쓰임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2.2.2 단어·경전 속에 쓰인 글자로서 제시

또 하나의 방식으로는 당시 널리 쓰이어 익숙한 단어 또는 경전 표현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해당 글자를 읽는 방식이 있다.

《周禮·夏官·序官》의 “挈壺”에 대한 鄭玄의 주: “挈讀如繫髮之繫。”

여기에서는 繫을 繫髮이라는 구절로 설명하여 繫의 발음과 의미를 한정하였다. 繫髮은 단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賈公彥의 疏를 통해 보면 이 때의 繫은 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그렇지만 《經典釋文》에서는 又音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鄭玄의 注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又音은 분명하게 의미적인 차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陸德明은 이 부분에서 발음상으로 굳이 結라는 음으로 읽지 않아도 해당 발음의 의미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⁷⁾

또 다른 방식으로는 당시 민간에서 사용했던 표현을 가지고 와서 讀如에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들이 익숙한 표현을 통해 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周禮·秋官·序官》에서의 “萍氏”에 대한 鄭玄의 주: “玄謂…讀如小子言平之平。”(鄭玄이 주장하길 … (萍은) “小子言平”의 平처럼 읽는다.)

3) 해당 구절에 대한 《經典釋文》: 臠, 舊火吳反, 依注音臠, 況甫反。徐況紼反。(臠는 옛날에는 火吳反이다. 注에서 음은 臠라고 한 것에 의거하면, 況甫反이다. 徐遜은 況紼反이라 하였다.)

4) 《儀禮·士冠禮》: “周弁, 殷冏, 夏收。”에 대한 鄭玄의 주: “冏名出於幘。幘, 覆也。言所以自覆飾也。”(冏라는 명칭은 幘에서 나온 것인데, 幘는 덮는다(覆)는 뜻으로 스스로 덮는 장식을 말한 것이다.)

5) 李學勤(2000:06-605)에서는 교감으로서 “段玉裁校本改『爲』。”라 하였다.

6) 釋曰……鄭讀挈如繫髮之繫者, 詩云『總角之宴』, 毛傳云:『總角, 結髮』。此鄭依毛傳, 繫即結之義也。(鄭玄은 挈를 결발(繫髮)의 결로 읽었다고 하는 것은, 《詩·衛風·氓》에서 말하는 『總角之宴(머리 묶고서 편안하게 지내던 시절에)』이라는 부분에 대해 毛傳에서는 『總角은 머리를 묶는다[結髮]는 뜻이다.』. 여기서 鄭玄은 毛傳에 의거하여 결은 즉 結의 뜻으로 본 것이다.)

7) 釋文: 挈, 劉苦結反, 一音結, 又戶結反。

이는 민간에서 읽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음을 제시하는 것으로⁸⁾, 보통의 음을 제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당시 민간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詩》 등 다른 경전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구절을 제시하고 이 구절 내에 등장하는 해당 글자의 음을 쓰는 방식이 있다.

《儀禮·士冠禮》：“緇布冠缺項，青組纓屬于缺。”(緇布冠은 缺項이라는 고정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푸른 색 관을 조이는 끝은 缺에 속한다.)에 대한 鄭玄의 주: 缺讀如有頰者弁之頰。(缺은 “有頰者弁”의 頰처럼 읽는다.)

鄭玄이 인용한 부분은 《詩·小雅·頰弁》의 “有頰者弁.”(우뚝 솟은 모자)이다. 缺의 일반적인 음 사용 방식에서는 頰의 음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2.3 발음의 확정

또 하나의 방식으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제시한 후, 발음을 확정짓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마치 《說文解字》에서 음을 제시하는 방식과 같다.⁹⁾

《禮記·檀弓上》：“布幕，衛也。繆幕，魯也。”(포로 관을 덮는 것은 위나라의 풍습이고, 잘 짠 천으로 관을 덮는 것은 노나라의 풍습이다.) 에 대한 鄭玄의 주: 繆，縹也。繆讀如綃。

위의 예에서는 ‘繆’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 그 글자의 독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글자의 의미로 해당 발음을 지적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발음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繆와 綃는 거의 유사한 물건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縹’이라는 설명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縹이 당시 통용하던 용어 중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縹’과 ‘兼’의 결합으로 구성된, 즉 이 물건은 두 실을 가지고서 짜낸 섬유 제품이기 때문이다.¹⁰⁾ 즉 당시 ‘繆’은 전혀 파악하기 힘든 단어이고, ‘綃’는 발음상 동일하고 의미상으로도 유사하지만 딱 들어맞는, 즉 정확한 의미상 동의어는 아닌 것이다.¹¹⁾ 이러한 부분에서 鄭玄은 의미상의 적합함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讀如를 통해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은 의미를 제시하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나 적합한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三禮注에서의 讀如의 기능

三禮注에서 讀如是 독음의 제공, 의미의 확정, 가차자의 파악 같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3.1 독음의 제공

반절이 등장하기 이전에 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譬況法을 통해서 음을 묘사하거나 음을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다.¹²⁾ 비록 反切과 같이 음절을 분석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8) 민간에서 유행했다고 하는 것은 賈公彥의 疏를 근거로 하였다. 賈公彥疏: 云讀如小子言平之平者, 俗讀, 取音同.(讀如‘小子言平之平’과 같이 읽으라고 말한 것은 민간에서 읽는 방식에서 음이 같은 것을 취한 것이다.)

9) 《說文解字》에서는 앞에서 해당 자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 글자의 구조를 밝힌 후, 음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說文解字》玉部 ‘璫’: “玉器也。从玉璫聲。讀若淑。”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글자의 발음은 ‘殊六切’이다.

10) 《淮南子·齊俗訓》: “夫素之質白, 染之以涅則黑; 縹之性黃, 染之以丹則赤.”(일반적으로 비단은 본래 흰 색이지만, 검은 진흙으로 물들이면 검게 된다. 두 실로 짠 비단은 본래 황색이지만, 단사로 물들이면 붉게 된다.)

11) 사실 이러한 점은 因聲求義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후의 의미적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애초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리키는 용어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12) 비항법에 대한 예시는 2.1에서 제시한 《春秋公羊傳》의 何休注를 참조.

3.2 의미의 확정

3.3 가차자의 파악

4. 나가며

13) 《禮記·儒行》：“雖危，起居竟信其志，猶將不忘百姓之病也。”(비록 위태롭지만, 행동에서 결국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은 마치 백성들이 앓고 있는 병을 잊지 않는 것과 같이 한다.)에 대한 鄭玄 주: 信讀如屈伸之伸。假借字也。

15) 이 부분에서 李學勤(2000:194)에서는 ‘爲’로 기록하고, 그 교감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考文引古本、足利本作『如』。”

2017年度韩国中语中文学秋季联合国际学术研讨会

11月 12日 (星期日)

15:00-16:30

语言学 分科 5-3 (203號)

主持：李善熙(CYBER韩国外国语大学)

张伟雄(日本札幌大学)

中日后现代思潮试论

陈佩英

印尼坤甸市汉语教学现状及发展趋势

郭曜棻(南華大学)

兩岸網言網語的對話：社會語言學觀點

蔡鴻濱(南華大学)

兩岸網言網語的遊戲：解構觀點探索

李继征/隋雨竹(水原大学)

韩国学习者汉语影视教学研究

陆潭晟(南京邮电大学)

基于沟通特性的高校教学模式探索

- 以中国高校学生课程参与意愿为参照 -

中日后现代思潮试论（发言提纲）

张伟雄(札幌大学)

目次

一、New Academism时代

1. 对权威，学霸的冲击
2. 允许“众说纷纭”的精神文化世界
3. “文化多义并存”

二、動物化的后现代Otaku时代：

1. 没有一个宏大的，共通的“故事”
2. “动物化的后现代”的传播效应

三、传统与后现代思潮（彭国华“从《庄子》的后现代意义说起”）

1. 关于“批判工具理性”
2. 批判“在场形而上学”和“言语中心主义”

四、迈入后现代社会（房宁“2015：中国后现代元年”）

1. 马拉松“后现代社会显著的文化特征”
2. “灵魂出窍、死而复生”与传统文化
3. 建设性后现代主义的视野

小结：

〈参考文献〉

摘要：在70年代末80年代初，日本出现了一股被称为“新学院派”的思想潮流，他们“跨学科的，超越特定的学问领域进行思考与研究”。来自结构主义，符号学，走向后现代主义思潮。80年代以后，出现了“動物化的后现代”社会现象，日本当今的时代称之为“Japan's Database Animals”时代，是Database消费的时代，那里使到“权威学霸无效”。而在中国从90年代至今，以“后现代”相标榜的各种理论思潮也层出不穷，其中有不少学者试图从中国的传统思想的角度去接近后现代思想，也有从生活方式改变与精神世界的变化的角度去考察中国的后现代思潮。本位试图从以上的视角探讨中日后现代思潮的走向。

关键词：快活知识，Database消费，《庄子》，北京马拉松，，关注生态文明

一、New Academism时代

1. 对权威，学霸的冲击

在70年代末80年代初，日本出现了一股被称为新学院派的潮流，他们跨学科，超越特定学问领域进行思考与研究。来自结构主义，符号学，走向后现代主义思潮。他们起到了对权威，学霸的冲击作用。1983年、当時20来岁的浅田彰の《構造と力》¹⁾成了畅销书，迎来了以法国现代思

2. 允许“众说纷纭”的精神文化世界

3. “文化多义并存”

二，動物化的后现代Otaku时代：

1. 没有一个宏大的，共通的“故事”

2. “动物化的后现代”的传播效应

3) 東 浩紀《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オタクから見た日本社会》 講談社2001/11/20

三、传统与后现代思潮的契合

1. 关于“批判工具理性”

2. 批判“在场形而上学”和“言语中心主义”

《庄子》对语言局限性的分析，进一步提出了“得意忘言”的观点。《外物》篇说：“筌者在鱼，得鱼而忘筌；蹄者在兔，得兔而忘蹄；言者所以在意，得意而忘言”。

四，迈入后现代社会

1. 马拉松“后现代社会显著的文化特征”

2. “灵魂出窍、死而复生”与传统文化

“极限运动中，当人体糖原耗尽的时候，人就进入了空灵飘渺状态，存在与时间皆成虚无。

5) 房宁“2015：中国后现代元年”环球时报 2015年12月16日



奔跑、无尽地奔跑，可以排除世间一切烦恼，可以把跑者纯化为主体。马拉松却能让人享受孤独，感受到天地之间一人之存在。”

3. 建设性后现代主义的视野

近年来中国的后现代思潮的研究出现了更多地关注生态文明，从过程思维和建设性后现代的视野展开研究与实践的动向⁶⁾。他们以整合视野及与中国传统文化契合作为方法论，“对自然的帝国主义态度，对他者的种族主义立场，对传统的虚无主义姿态，对科学的盲目崇拜，对理性的过分迷信，对自由的单向度阐释，对民主的均质化理解”等，进行了梳理和反思。将学问放到现实社会的发展去考察，把学问研究与问题解决联系在一起，这是值得关注的动向。

小结：

纵观中日两国的后现代思潮，我们可以发现，尽管后现代思想不是一个时间概念，但中日之间的后现代思潮的流动，与社会经济文化状态的变迁有着密切的关系，都呈现出某种互动性与连续性。在应对后现代主义思潮方面，通过梳理中日两国的走向，能发现这种全球性的思潮在各地的共性与特异性，这有利于我们合理地与建设性的后现代主义磨合，通过与这个思潮的磨合，能有效地解决近代化现代化过程中遗留的各种问题。后现代主义是一种哲学思想，同时也是一种“生活风格”。

〈参考文献〉

- 山口 昌男《文化と両義性》岩波書店1975/5/30
浅田 彰《構造と力—記号論を超えて》勁草書房1983/9/10
東 浩紀《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オタクから見た日本社会》講談社2001/11/20
彭国华“从《庄子》的后现代意义说起”《人民日报》2013年07月24日
房宁“2015：中国后现代元年”《环球时报》2015年12月16日
王治河 樊美筠《第二次启蒙》北京大学出版社2011年1月1日

⁶⁾ 王治河 樊美筠《第二次启蒙》北京大学出版社 2011 年 1 月 1 日

兩岸網言網語的對話：社會語言學觀點

郭曜棻(台灣南華大學傳播學系講師)
世新大學傳播博士學位學程博士生)

一、問題意識

大陸 2015 流行的網路語言「我的內心几乎是崩溃的」、「明明可以靠脸吃饭，偏偏要靠才华」、「我带着你，你带着钱」、「世界那么大，我想去看看」、「然并卵」、「城会玩」、「吓死宝宝了」等。台灣自是不遑多讓，2016 年火紅的十大網路語言：「寶寶得第一，但寶寶不說！」、「最 XX 的那種」、「哇，太狂了吧！」、「很重要所以說三遍」、「您 XX 系的？」、「9.2」、「XXX 的形狀」、「哈味」、「你只想到你自己」、「X 好 X 滿」等。

研究者感興趣的是兩岸雖同文同種，但是隨者兩岸分治多年，網路語言不免同中有異、異中有同，透過上一段兩岸網路語言的對照便可知。然更有意思的是，上述網路語言有的是兩岸共通，有的卻是互斥。研究者認為其背後彰顯的便是兩岸分治後，在深層文化與價值觀底蘊中產生了巨大差異，值得深入玩味。基此，研究者從兩岸網路語言為出發點，從社會語言學觀點的視角，論述探討兩岸網路語言顯示哪些語言現象上的社會性意義。

二、網路語言與社會生活

社會語言學作為一邊緣科學，在上世紀六〇～七〇年代才被公認為一門獨立的學科，雖然研究的範疇學者多指尚未清楚畫出，但是社會語言學可以從以下三點去觀看語言現象並進行相關研究，此即：1.語言是一種社會現象；2.語言是人類社會最重要的交際工具；3.語言是人類思想的直接實現(陳原，2001：106)。簡言之，社會語言學的任務係在於描述「**語言與社會結構的共變**」(105)。本文乃以前述關於社會語言學的定義視角切入，思考網路語言在兩岸火紅之下，其產生的社會意義。以下乃從三個角度切入探討，包括：(一)必也正名乎？「網路語言」作為一種社會「語言」？(二)語用觀點的思考：社群篇；(三)語用觀點的思考：語言素養篇。敘述如下。

(一)必也正名乎：「網路語言」作為一種社會「語言」？

本文伊始必須釐清的是，「網路語言」是否可以作為社會生活語言的問題？研究者參照許多對於「語言」一詞的定義來思考網路語言可否視為一種(社會)語言。一般說來，(社會)語言之所以為語言，可以從語言的特徵、定義等角度來審視，這些角度也有助於我們審視網路語言是否為一種社會「語言」？

首先，社會語言學的要角——語言——就其特徵來說，謝國平(2002: 1-3)指出，語言乃是人類也別於其他生物的主要特點，也是人類傳言達意的工具。他在參看 Hockett、Hall、Chao、Atkinson 等、Akmajian 等人對於語言的看法後，認為語言具有以下特徵(pp.:3-7)：1.聲音；2.廣播方式的傳訊與定向的接收；3.迅速消失的訊號；4.可交替性；5.完全的回輪；6.功能專門化；7.具有語意；8.任意性；9.分立性；10.超越時空性；11.創新性；12.傳統性；13.形式的二元性；14.為不實之言的能力；15.反顧的特性；16.可學習性。

其次，就語言的定義來說，Peter Angels(1992/2004)在哲學辭典“The Harper Collins Dictionary of Philosophy”指出語言一詞來自於拉丁詞 *lingua*(舌頭、言語、語言之意)，是指標準化的意義，以及作為交往方法的言語形式，也是任何一種以前後一貫的意義、形式表達意識內容(包括感受、情感、慾望、思想)的工具。簡明大英百科定義為：「語言是同一個文化中的人所使用來互相溝通的一套口說或書寫符號系統。語言反映並影響文化中的思考方式，並會隨著文化中語言的發展而改變。」^[1]

Chomsky(1957: 13)的定義中，視語言為一組(有限或無限的)句子，且每個句子的長度有限，而且每個句子都是由有限的一組成份所組成。

Spair(1921)在其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一書中，定義語言為是人類藉由符號系統，表達與溝通其理念、情緒與慾望的一種方法，這些符號由人在有意識的情況下藉著發音器官所發出的聽覺訊號。Saussure 則指語言是人類口語功能下的「社會性產物」(social product)，也是讓人類使用這種功能的約定俗成之規則的集合體(轉引自謝國平，2002: 9)。

Wardhaugh(1998: 1)認為語言是一個複雜的概念，他定義語言為一個特定社會中成員的口語表達(speak)。Montgomery(1995: xxv)定義語言時，指語言最好被理解為一組相互扣緊(interlocking)的關係，其中語言的形式產生的意義來自於符號在整體中的位置。

謝國平(2002)統整前述諸學者的觀點認為，語言的共同要素包括有系統的、以聲音為傳訊的符號、任意約定俗成的、是人自主而有意識的行為，以及是與文化有關的社會行為。

整體來說，由前述對於語言的特徵與定義可知，語言是人類的智識行為，也是相互聯繫的工具，更具有社會性的意義。回到網路語言來說，在網路中 BBS、MSN、Blog、FB、Twitter 等中出現的網路語言，在諸多面向上吻合語言之所以成為語言所應該具有的特徵與特性，例如前述謝國平所定義的 16 種語言特徵中，網路語言除了在 1.2.3.5.項中，因涉及實體的口語操作上，顯得不足之外，餘皆吻合作為語言的要求，而且網路語言中的表情符號、語氣詞等等，對於網路語言在 1.2.3.5.的不足又具有某種程度的補償作用。

1) 參見線上簡明大英百科 <http://wordpedia.britannica.com/concise/content.aspx?id=4794&hash=>

不過，值得更深入探討的是，網路語言雖缺乏完整的語言文法，但仍有部分的網路語言有脈絡可循、有約定俗成的傾向。

(二) 語用觀點的思考：社群篇

換言之，從社會語言學的角度來看，不論台灣或大陸，其流行之網路語言展現了口語方具有的社群屬性，讓書寫性文字也創造出我群、他群等等人我關係與社群特徵。也因此，網路語言具有社群的功能，也具有建立人際關係的效用等等，深切契合社會語言學的要旨。

蔡鴻濱(2008)的研究分析了 383 位大學生對於網路語言的認知，便發現台灣的大學生普遍認為以書寫呈現的網路語言具有認同、溝通、社交等特性，進一步呼應了、說明了網路語言不僅僅是無厘頭或搞怪的噱頭而已，其尚且具有建立社

群、形成認同的重要作用與價值。

因此，兩岸網路語言在網路上產製出來的虛擬社群，不僅挑戰傳統實體社群的概念，虛擬社群更突破傳統口語社群處處受到時間限制的困境，讓活在地球任一角落的人類，都可以透過共享的網路語言，建構一個跨國、跨洲的全球性社群，而讓社群的概念變得更加寬廣，也變得有更多的可能性。這種情況則當初社會語言學興起時，始料所未及的。

(三) 語用觀點的思考：語言素養篇

研究者認為，網路語言使用的背後展現的更是一種吾人對於社會語言素養具備與否的檢視。如前所述，語言是一種(最重要的)交際工具、是人的思想的直接實踐，那麼兩岸火紅的網路語言，彰顯出來的則是我們公民在語言的社會實踐的哪些素養呢？在回答這個問題之前，我們不妨先對素養予以說明。

首先，可從對書寫的觀點言之，舉凡對於語言書寫的討論，不免都會提到語言書寫與素養之間的恆等式，換言之，語言書寫對於公民素養(literacy)養成、型塑起了重要的作用。換言之，我們視語言書寫為一種公民素養的養成，一種文明的形成，因此透過習得語言、學會書寫，便可展現主體的素養與文明化程度。

一般說來，從語用的觀點來思考口語、書寫問題時，也咸認為操持口語者較不具素養，但若習得書寫，便可宣稱某人具有某種程度的素養了。

茲不論口語、書寫的素養熟優熟劣，若從兩岸之網路語言的角度來看素養，則研究者認為網路語言意義、規則、寫作方式的習得，其實蘊含著公民之社會語言素養的展現。舉例來說，台灣的網路語言「丁丁是個人才」、「鄉民」、「五樓」、「SPP」、「Orz」、「扛八袋」等等網路語言的習得過程中，不僅使用者本身就必須熟知國語、台語、客語、日本語等等多種語言的正式使用方式，還要了解其變異形式，否則無法理解「鄉民」一詞之意義。因此，了解網路語言其實也是個人社會語言素養的展現，此現象也可讓我們重新思考語言的價值、語言知能等等，因此網路語言不單單是無厘頭、搞怪的工具而已，它同時說明了社會語言內涵的流變，意義豐富。

三、結語：不僅是世代現象！不僅是次文化！

研究者認為，兩岸網路語言彰顯的不僅是一種世代現象或不僅僅是某些特定族群的次文化現象。隨時數位語境的勃興，本文認為網路語言逐漸成為兩岸人民之社會性生活語言的一部分。

就世代語言來說，宅男、宅女、腐男、腐女已經成為當前經常用之於網路語言使用者的負面形容詞。這些宅男宅女現象反映的是網路語言世代的來臨，網路語言已經成為某世代的特殊現象。而這類現象尤其與隨著電腦網路一起成長的七

對於他們的經驗，目前掌握實權的成年人，經常都視網路語言為一種不成熟的次文化或是長大就會好的小毛病，但是從研究者長期觀察與分析之過程中卻發現，年輕世代的成長與電腦\手機有密切關係，而且他們的網路使用經驗不容忽視。

其次，從次文化來看，網路語言研究者認為不僅僅是一個次文化的問題。一般說來，次文化都有侷限性與明顯的社群屬性與外在特徵，例如台客文化、龐克文化、嬉皮文化，或是大陸的光棍節等等。但是，不同的是，網路語言隨著網路與電腦的普及，使用人數的愈來愈多，而且存在的時、空，遠非過去任何次文化所可比擬。雖然許多學生長大之後容或可能不再使用網路語言，但使用網路語言卻已是所有年輕世代的共同經驗，換言之，他們在某種程度上不僅是可辨識網路語言符號，更是作為溝通的符碼，已是不爭的事實。

一、緒言

人類彼此間的溝通行爲，在草萊時期最先係透過彼此的口語表達，甚至比手劃腳。惟隨著文字與印刷術的出現，人類進入書寫文明時期迄今。有趣的是，近年來伴隨著網路的勃興、數位時代的來臨，使得網路書寫口語化——意即「次級口語」(secondary orality)——進而產生諸多別具意義或光怪陸離的流行網路語言，例如大陸2015流行的網路語言「我的內心几乎是崩溃的」、「明明可以靠臉吃飯，偏偏要靠才華」、「我帶着你，你帶着錢」、「世界那麼大，我想去看看」、「然并卵」、「城會玩」、「吓死寶寶了」等。台灣亦不遑多讓。2016十大火紅網路語言「寶寶得第一，但寶寶不說！」、「最XX的那種」、「哇，太狂了吧！」、「很重要所以說三遍」、「您XX系的？」、9.2」、「XXX的形狀」、「哈味」、「你只想到你自己」、「X好X滿」。

對於兩岸不斷推陳出新、且大肆流行的網路語言現象，除了莞爾一笑，其背後蘊含著更多值得吾人思索與討論的空間。基此，研究者認為透過法國當代哲學家Derrida解構理論思維與其主張的延異(Différance)與補充(Supplement)等策略觀點，深入解釋網路語言的精義。尤其Derrida所提供的解構策略：「造新字」(neologisms)、「古字新解」(palaeonymics)，讓吾人對兩岸網路語言之操作邏輯有更深邃的認識與體悟。

二、解構「口語—書寫」的二元對立

自從六○年代西方語言學的轉向之後，對於語言與符號的研究、詮釋與批判，至今一直都是學界的重要一支。網路語言相信也是學者可茲著墨的重心。由於Derrida的解構理論對於審視網路語言的運用有其意義與價值。此本文乃從「口語」與「書寫」的差異切入，並就Derrida關於「延異」與「補充」觀點來探討與網路語言有關之解構策略。「延異」與「補充」兩者為Derrida解構語音中心主義(phonologism)與邏各斯中心主義(logocentrism)的策略，也是分析網路語言特性的策略，其主張遊戲態度來運作解構策略，並以遊戲思維分析網路語言。

(一)Derrida 與其思想

閱讀Derrida的解構思維，可知他企圖推翻西方自Plato以來兩千多年的理性中心思維，認為「口語」(speech)比「書寫」(writing)更能傳達哲學性的思維論述。1967年出版的三本重要著作皆提出文字學理論，以取代傳統語音中心主義的觀念，並且批判「現象學」(phenomenology)與「結構主義」(structuralism)，從而奠定其解構哲學的理論基礎。這三本著作為：《口語與現象》(Speech and Phenomena, 1967/1973)、《書寫與差異》(Writing and Difference, 1967/1978)、《論文字學》(of Grammatology, 1967/1997)。

《口語與現象》討論胡塞爾現象學符號理論的解構閱讀；《書寫與差異》一書，則透過Hegel、Freud、Rousseau、Levy-Strauss、Saussure來探討結構、符號與書寫等等之問題，和本研究的關係甚深，尤其第三本《論文字學》，分析自

Plato 以降的邏各斯中心主義下的文字、書寫等問題，討論的重點諸如批評從 Socrates 到 Heidegger 認定真理源於邏各斯，或解讀 Rousseau 思想中邏各斯(logos)和書寫的衝突，或批判科學漠視科學實踐不斷否定邏各斯帝國主義的事實等等，均讓我們對書寫、文字有更深一步的思考(Derrida, 1967/1997)。在《論文字中》，Derrida 認為口語、書寫完全不同，因此西方傳統主流中視口語、書寫為主從關係、二元對立關係，必須打破，且應視之為互不隸屬的關係。

從口語與書寫的角度來說，Derrida 立論的基礎就是從口語優於書寫的立論而來，他認為就是因為口語凌駕於書寫，而對西方哲學的形成有關鍵性的影響。

Derrida 在《論文字學》一書開始就指出，西方近三千年來的形而上學(自 Plato、Aristotle、Hegel、Freud、Rousseau、Husserl)就是邏各斯中心主義，並賦予口語(speech)特權。他指出，聲音是一種享有特權的傳播媒介且具有意義(Derrida, 1967/1997: 6-26)，這就是語音中心主義，以聲音為主，而邏各斯中心主義也不過是一種語音中心主義，主張口語與存在的絕對貼近，口語與存在意義的絕對貼近，口語與意義的理想性的絕對貼近。至於書寫，則是衍伸而來，其不過只是一種口語的再現(representation)、無本質意義(no constitutive meaningful)，因此是一種劣質的補充物(supplement)、次極品，一點也不重要，能夠甩開最好。所以，我們所處的邏各斯中心主義時代，貶低文字。而且，這種絕對的邏各斯具有統一性，也是中世紀神學中的創造性主體(p. 11-12)。

基此，文字書寫一直都是派生的、偶然的、特殊的、外在的，它是能指，即文字書寫為語音的再現(p. 29)。換言之，書寫是口語的再現，口語是思想、至高無上的觀念，而在思想、口語與書寫的關係中，口語最為接近思想。對此，Derrida 引 Aristotle 的觀點指出：「口語是心智經驗的象徵符號，文字則是口語的象徵符號」；引 Rousseau 的觀點說：「基於說話的需要，而有語言的產生，但書寫只是用以補充口語之不足。」；用 Saussure 的觀點表示：「語言學的研究對象只有口語。書寫是一種陷阱，其行徑惡虐殘暴，其例子荒誕怪異。語言學者應該對書寫予以隔離，並另行觀察。」(p. 30)

Derrida 指出書寫作為一種工具使用，是種不完善的工具，其有害與危險來自於其外在性。Derrida 乃認為 Plato 在‘*Phaedrus*’中將書寫指控為一種具侵略性的人工技術，這種技術甚至想以暴力手段篡奪言語的中心地位(楊大春，1995)。

Derrida 在《播撒》中的〈柏拉圖的藥店〉一文中，也引‘*Phaedrus*’篇中的觀點，繼續討論口語與書寫的問題。他問書寫是一件正經事嗎？書寫者值得尊重嗎？書寫是否合宜？等問題，他指出答案當然是否定。在此，Derrida 將希臘字‘*pharmakon*’(譯作一帖魔藥或秘方、特效藥、處方等)的雙關語來解釋。他把‘*pharmakon*’這個具有良藥與毒藥雙關意義的字，用來形容書寫，即它可以治療記憶之不足或智慧之有限，但也因此變得依賴，事實上書寫的智慧很表面，因此他最後只會擁有自以為智的傲氣，而並非真知。書寫就像畫像一樣，沒有生命，無法回答你提出的任何問題，而且不管任何人擁有書寫，都與書寫不相干。因此，書寫遭到唾棄，在於它使真實的記憶力衰退，使真實的知識教育敗壞，使得偽知識取代真正的智慧，書寫變成沒有生命、沒有依靠的孤兒。這也與書寫不該對誰說有關，而當它被濫用誤解時，需要父親在場，來幫它辯護，因為書寫本身沒有自我辯護的能力(Derrida, 1972/1981: 71-80)。

(二) 解構「口語—書寫」

其實 Derrida 對語音中心的批評及對書寫從屬地位的解構，在於解構「口語—書寫」此一奠基於西方傳統中的二元架構。Derrida 企圖解構西方形而上學的邏各斯中心主義讓「書寫」不再屈居受壓抑、從屬的附庸地位。即將書寫從 Plato 在‘*Phaedrus*’當中的宣判：「你指的不是僵死的文字，而是活生生的口語，它是更加本源的，而書面文字只不過是它的影像。」中解脫(楊大春，1995: 99-100)。

Derrida 的解構策略在於動搖形而上學的思想。本文透過了解 Derrida 的解構策略，尤其是對書寫文字的解構策略，來探討兩岸流行之網路語言文本。其中補充策略中所提及的造新字(neologisms)以及古字新解(palaeonymics)策略為 Derrida 強調破壞傳統形而上學的有效方案，由於這兩種策略的本質，係一種新詞的創造，又與網路語言的本質相符，有助吾人思考探索網路語言的價值。說明如下。

《書寫與差異》英譯者 Bass，其為 Derrida 的 *différance* 一詞下定義指出，在批判語音中心主義的過程中，Derrida 特別關注在「差異」議題上。他認為傳統西方文字「差異」(*différence*)，根本無法表達「差異」本身真正的意涵，所以他特別創造了一個新的字，來表達「延異」(*différance*)概念所指之「產生差異的差異」。Différance 一詞在法語中，這兩個詞的讀法完全相同，但彰顯了 Derrida 解構主義所要表達的重要觀點。因為法文的 *différer* 源自拉丁文的 *différre*，而拉丁文的 *différre* 具有兩種極大差別的所指；一個是指時空間性的間隔，例如英文中的 *to differ (in space)*，另一個是指時間性的延遲，例如英文中的 *to defer (to put off in time, to postpone presence)*。Derrida 認為法文的 *différence* 喪失了這兩種蘊意，所以才用 *différance* 來補償之(1972/1981: xvii-xviii)。

蔡鴻濱 / 兩岸網言網語的遊戲：解構觀點探索 ● 419

整體說來，Derrida 的延異觀點，本質上是反中心和無中心的，企圖擺脫中心化的解構遊戲活動中，集中全力致力於摧毀各種歷史的傳統二元對立模式，而符號體系中「能指」和「所指」的二元對立，乃是關係著許多本體論和認知論的理論核心，而 Derrida 把這些二元對立的根本問題歸結到玩弄「在場」與「不在場」的辯證法，傳統文化就是以語言符號的「在場」、「出席」，來代替「不在場」、「缺席」。所以 Derrida 極盡一切力量批判邏各斯中心主義且主張當以遊戲態度取代理論態度，這種態度本身就是對傳統二元對立的突破與顛覆。

前述反語音中心主義及延異的概念在網路語言分析上有其適當性。此肇因網路語言係具意義不確定的語言遊戲，歧義性極高與 Derrida 前述觀點若合符節。

(二) 補充

補充(supplement)一詞來自於《論文字學》一書。Derrida 在該書第一章充分討論西方語音以及邏各斯中心主義等等問題之後，在第二章中討論書寫的補充作為一種解構策略，此策略在於抓住文本之間的矛盾性與歧義性，以重寫文本。

從 Derrida 書中的「補充」觀念來說，以「那種危險的補充」(That dangerous supplement)名之，係從 Rousseau 的觀點指出，書寫是一種危險的手段，將帶來威脅，是一種口語無法到場時的補充，意即當下迫切需要書寫來補充口語。但是口語是自然的或是自然的表達，而書寫卻不是自然的，因此這種做法自然不僅是奇怪，而且是危險的，這一種書寫的補充手段，是利用口語缺席的而設計的圈套，將帶來語言的暴力。Derrida 寫下這段話表示(1967/1997: 144)：

語言的創造是為了口語，書寫卻僅是口語的補充，……口語透過約定俗成的符號(sign)再現了思想，書寫則以相同的方式再現口語。於是，書寫的藝術不過是思想的間接再現。

由前述的觀念可知 Derrida 將書寫視為一種補充，符號則為補充物，書寫是口語缺席時的補充，且真真切切的在場。不過 Derrida 認為書寫無論如何都能只是補充物。這樣論述凸顯「口語—書寫」上的差距。但是，此一差異卻成為他動搖西方形上學思想的基礎。換言之，Derrida 企圖利用補充物的策略與方案，打破「口語—書寫」的二元對立關係，以及上下從屬的位置。這種策略的應用，有助於思索當前網路語言的意義。

在〈那種危險的補充〉文中，Derrida 利用「造新字」(neologisms)以及「古字新解」(palaeonymics)，來破壞形而上學的基礎，簡單來說，他是利用一種所謂的不確定性來破壞穩定的結構，前述的延異概念，也是不確定性觀點的利用。

就「造新詞」策略而言，Derrida 舉的例子就是前述的 *différance* 一詞，這種新造字無法用別的字來替換，這是因為那是新字，字典裡面沒有，所以無從替換。這樣的情況，就像是網路語言中產製出來的新字詞：如 Orz 這種兼具象形作用的新字，或是拆字詞，例如：女子月月友(好朋友)、水昆(混)、口合口合(哈哈)等等，其意義是壟斷獨占的，不僅補充語言的不足，又涵蓋許多意義在內，他也指出這種延異的活動範圍介乎：1.放在口語和書寫之間：例如前述 *différance* 的發音和 *différence* 一樣，因此用說的，耳朵無法辨認，所以 *différance* 授權給書寫，同時也具有口語的可能；2.放在名詞和動詞之間：*différance* 不是動詞或名詞，因此，可優遊於行動和事物之間；3.放於感知和理解之間：延異遊戲橫跨 Saussure 的能指與所指的兩個面向；最後 4.放於文字和概念之間：*différance* 並不存在，它

不是一個呈現之物(presenting-being)，一個具有本質存在的東西，因此延異不用回答它是什麼這種問題，所以最好把它寫成：différance *is*(延異存有)，刪掉它卻又不排除它，讓它既存在又不存在、既在又不在，現於當下又非當下(安原良譯，1998：76-78)。研究者認為 Derrida 在強化遊戲在書寫上的作用，讓一切都沒有起點，卻又具有策略性。

就「古字新解」策略而言，係指將舊有的字重新詮釋，以賦予新的意義和用法，這種策略不僅僅指單字，且排除說話(speaking)，並且是一種穿梭於口語(spoken words)與書寫記號(inscribed marks)的一種不確定性的遊戲。以 Derrida 所著的“*Of Grammatology*”一書為例，其就已經在玩古字新解的遊戲。Grammatology 這個字的後半部 grammé 就是「書寫的痕跡」(written mark)之意(Derrida, 1967/1997: 9)。也因此我們通常無法確定這種字在何種情況之下是何種意思，因為除非我們加上一些所謂的 writing-in-Derrida's-sense(德悉達所謂的書寫的附註文字，否則難以理解。不過附註文字也是一種補充，它又帶有自己的不確定性。因此，不論使用者是 Derrida 或是他者，古字新解的策略，都使字詞的用法產無窮變化的可能性(安原良譯，1998：76)。

四、小結

Derrida 爲了改變西方形上學的結構、及「口語—書寫」二元結構下，設計了種種的解構閱讀或解構文字方案，恰可應用在網路語言的分析上。從 Derrida 設計的這些方案之精神言，由於可在網路言獲致實踐，又企圖顛覆「口語—書寫」二元論，則我們容或可說網路語言某種程度上已自成一種獨立存在的表達體系。

總而言之，Derrida 的諸多論著、思想提供吾人思考當代數位語境下網路語言的一套認識與理解之道。更重要的是，Derrida 的解構策略在其嚴肅的目的外，更蘊含遊戲的精神，對此研究者也認同吾人不妨以遊戲態度，以本文中倡議的解構策略如延異、補充等爲視角，笑看近年來兩岸不斷推陳出新之網路語言現象。

· 參考文獻

1. 安原良譯(1998)。《德悉達》。台北：立緒。(原著：Collins, J. [1996]. Derrida for beginners.)
2. 楊大春(1995)。《德悉達》。台北：揚智。
3. 楊大春(1994)。《解構理論》。台北：揚智。
4. Derrida, J. (1981). Positions. (A. Bass,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5. Derrida, J. (1997). Of grammatology (Corrected Ed.). (G. C. Spivak, Tran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6. Derrida, J. (1991). Ulysses gramophone: Here say yes in Joyce. In P. Kamuf (1991).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 (pp. 569-600). N.Y.: Columbia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4).
7. Derrida, J. (1981). Dissemination. (B. Johnson, Trans.). London: Athlon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8. Derrida, J. (1978). Writing and difference. (A. Bass,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67).
9. Derrida, J. (1973). Speech and phenomena, and other essays on Husserl's theory of signs. (D. B. Allison, Tran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韩国学习者汉语影视教学研究

李继征 隋雨竹（水原大学）

近来韩国国内教学单位中正在广泛地使用影视这一手段作为外语教学的辅助，其中也包括汉语教学。影视作品呈现出的戏剧情节、人物形象、音效场景等素材生动有趣，往往使得汉语学习者在观看影视资料的同时除了潜移默化地进行语言学习外，还能够对其中所蕴含着的特有的历史社会风情文化进行了解，并进一步激发学习动力，有着良好的教学效果。但就笔者的调查结果来看，大部分的汉语影视教学仍然局限于播放汉语原声影片，并在观影结束后让学习者针对影片进行讨论的状态，教学模式较为单一且随意。从汉语习得的角度来看，大部分学习者的学习效果并不理想。我们知道汉语影视教学作为一种正在兴起的语言教学手段，由于其内容丰富，趣味性强，可全面培养汉语学习者听说读译，以及对影片传达出的历史文化知识学习深化的能力，正逐渐进入到对外汉语教学的课堂中。但只是目前尚处发展阶段，暂时没有统一的标准，也没有较为完善的教材，模式简单，缺乏深入的研究成果，所以暂时很难保证较好的教学效果。因此如何运用影视教学这一教学手段进行科学高效地教学，如何针对这一新兴的教学手段设计合理的课程计划是本文想讨论的问题。

本文在既有研究成果基础上，利用笔者在教学中所使用的国产影片《大鱼海棠》为例，分析针对韩国汉语学习者汉语影视学习的实际情况，并在此基础上简要讨论对外汉语影视教学的课程设计，根据实际情况讨论课程中出现的问题以及应对方法。希望通过这一研究对希望运用或已经运用这一手段进行教学的同行提供一些有益的参考。

【关键词】对外汉语教学；影视教学；教学设计；韩国学习者

基于沟通特性的高校教学模式探索

— 以中国高校学生课程参与意愿为参照 —

陸渾晨（南京郵電大學）

<초록>

오늘날 중국 대학교육은 교학의 질이 저하하는 등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학 강사의 강의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따로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들이 평가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등을 통해 도출된 강의 유형이 학생들의 수업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교학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강의 유형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국 대학교육의 우려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21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절차에 있어서, 먼저 학생들이 평가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등에 대해 요인분석,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교수자의 강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어서 일원변량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교수자의 강의 유형이 학생의 수업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주제어: 중국 대학교육, 커뮤니케이션 유형,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강의 유형, 수업참여의도

一 绪 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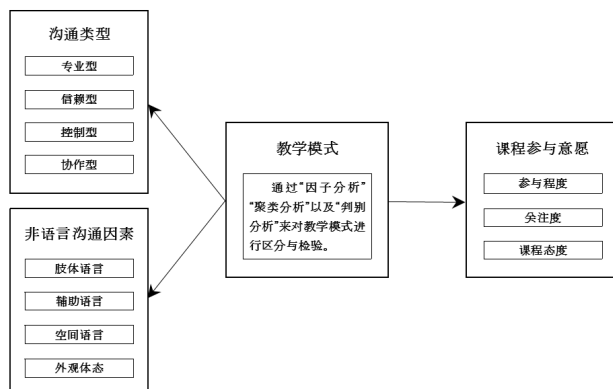
近年来,国内学界关于提高高等教育质量的呼声愈来愈高.其原因为在教育发展的过程中,人们愈发清晰地认识到教学方法的优化及完善对学生在知识获取与人性陶冶的过程中能够起到重要的作用,而传统的灌输式教学模式已是无法达到该种理想的教学效果.长期以来,教育界在基础教学的教授方法与教学模式方面发展得较为充分,与之却忽视了针对高校课堂教学的相关研究.国内高校教师多数本着“大学无教法”相近的观念,将工作的重心集中于科研项目的申请与运作之上,无心埋头于教学方法的改进与完善之中.在课堂教学的进程内,往往使用自己惯用的一套教学模式来敷衍了事(薛天祥,2001).其结果为,学生逐渐沾染了被动接受、缺乏质疑、无法思考、视野单一等问题,同时也在独立能力、创新能力、实践能力、研究能力等方面的发展进度缓慢,成才的道路更是布满荆棘(华国栋,2001).因此,对于国内高校教学模式的研究与整改已是当务之急,而高等教育最终目标的实现,关键就是在于传统僵化教学模式的改革(董永江,2000:114)。

教学模式是联系教师、学生以及教学内容三者之间的媒介和桥梁,也是教学效率和教学效果的重要保障.换言之,教学模式能否选用得当对教学的成功与否有着直接的影响.一般来说教学内容是相对稳定的,而授课方法、教学模式则会随教师与学生的不同特性而有着诸多变化,所以说教学模式具有高度的灵活性,这也说明教学模式的适用能对教学质量的提高起到关键的作用。

虽然多数高校已经意识到了传统教学方法在应用与成效上的欠缺,也提出了相应的优化建议.但仍有部分教师以“讲”为主,不注重沟通技巧,无法得到学生的认同.久而久之,学生在这

种沉闷的课堂教学氛围下难免孳生倦怠感，在课程参与方面消极怠工、无心应付，专业学习方面囫圇吞枣、食而不化。主观而言，教师课堂教学作为教学活动过程中最重要的组成部分，对教学质量的提高和教学目标的实现起着举足轻重的作用。客观来讲，学生课程参与意愿的高低完全可

〈图 1〉研究模型



以成为评价课堂教学目标与教学质量水准的重要指标。然而当今高校教师教学模式的运用不当，已经严重制约了自身的课堂教学效果、削弱了学生的课程参与程度。因此，为了有效完成教师的教学目标、提高学生的学习意愿，针对教学模式展开探索性的研究就显得尤为必要。此外，教学活动也是学生与教师之间的一个信息交换、知识传达的过程。从本质上来说，教学活动也可以被称为“教学沟通”，而沟通因素也正是教学模式改革中的核心部分(焦娟妮，2013:90)。即从沟通的视角重新审视现行教学中的方式方法，可以为尝试构建出更为合理的教学模式与教学体系提供帮助。

鉴于此，本研究将国内高校在读中国大学生设置为调研对象，通过对其在课堂中直观感受到的教师的“沟通层面”，即沟通类型与非语言沟通因素的特性展开观察与分析，以此为依据对授课人员的教学模式进行分类。并以学生的课程参与意愿为参照，尝试从分类而得的多种教学模式中，发掘出最为适用的有效教学模式。在展望中国高校教学水平良好发展前景的同时，希望本文能为国内高校教学方法创新、教学质量提高，以及有效教学探索等方面的研究提供实践性的参照，以期为今后相关领域的深层研究有所裨益。

二 设计

1. 资料

本研究中所使用的资料为2016年10月至12月由研究者所实施的“中国大学生课程参与意愿优化方案改革调研”的回收数据。该调研意在了解中国大学生整体课程参与意愿现状的同时，通过对教师在课程进行过程中所体现出的沟通类型与非语言沟通因素等特性的分析，标明能够影响大学生课程参与意愿的重要要因，以致于探索出能够提高教学质量的有效教学模式。资料收集的具体方法为，首先研究者通过云调研程序抽取80名在读的中国大学生，使用初期量表对其进行预调查，在对预调查的分析结果进行整合后，以其为依据对调查中的问项进行补充修正，并完成量表的最终编制。随后通过社交网络平台使用随机性标集法对愿意接受调研的国内大学生人群发送最终编制而成的调查问卷，并在设问时限结束后进行标本抽出，共467份问卷得以回收。在剔除无应答、不诚实应答和缺乏一贯性的回收卷后，最终共421份为本研究所分析使用。

2. 模型

本研究就国内大学教师在教学进程中所具备的沟通类型与非语言沟通因素展开观察,以此为参照对其教学模式进行类别区分。并通过不同类别的教学模式与大学生课程参与意愿之间的相互作用,来发掘出能够增强学生整体课程参与意愿的有效方法,继而得出课程教育适用的有效教学模式。

对此,变量的设定即通过对教师的沟通类型与非语言沟通因素进行区分而得出的教学模式为自变量,大学生的课程参与意愿为因变量。其中,沟通类型以“专业型”“信赖型”“控制型”“协作型”等四种类型来进行区分,而非语言沟通因素则由“肢体语言”“辅助语言”“空间语言”及“外观体态”等四个因素所构成。此外,被测对象的性别、在学阶段、所属学科、住校与否等一般特性为外生变量,在分析过程中承担着控制变量的角色。

3. 測量

大学生课程参与意愿的测定, 本文在参照课程参与相关先行研究之后, 借助차민정等人(2010:209)所开发的“学生课程参与量表(learner participation scale in instruction)”来进行题项编制。在对原始量表进行修正的过程中, 考虑到问卷作答的简便性与研究对象的差异性, 故研究者将测量的基准制定为-基于被测对象与课程之间的直接·间接交互程度, 通过感官认知与相互作用来对课程参与过程中的“参与程度”“关注度”以及“课程态度”作出量化式报告, 并最终将测定区间设置为3个子领域共11个题项。各题项均使用“李克特7级量表”进行作答, 即给出的分数越高, 其课程参与意愿也就越高。经检验, 各项的内在信度良好。

教学模式的第一类分流变量-**沟通类型**的测定, 参考Ben-Sira(1980:173)的先行文献与Dwyer等学者(1987:13)的研究成果, 对此类研究中的沟通类型相关量表进行考察与借鉴, 在理论的根源上对先行研究中的测量题项进行删补, 并根据研究的主旨将沟通类型区分为四类, 即强调教师对所授科目的理解与运用具备专业水准的“专业型”沟通方式, 强调教师与学生之间相互信任的“信赖型”沟通方式, 强调教师自我主义与权威意识的“控制型”沟通方式, 以及强调教师对学生所表现出的亲切与关心的“协作型”沟通方式, 从而最终完成沟通类型部分的量表编制。为了确保研究的结构效度以及验证先行研究中所提出的分类依据之准确性, 本研究使用探索性因子分析来对被测对象的沟通类型进行降维分类。经分析后可以发现分析结果与先行研究并非完全一致。虽然沟通类型中的“控制型”与“协作型”可以得到与其他类型的有效区分, 但“专业型”与“信赖型”却被归为类同一因子, 并占有大部分的方差解释量。研究者根据数据分析的客观性及通过对两者在沟通类型中定义的整合, 将两者合置为具备双方特性的“专业-信赖型”沟通方式。至此, 本研究中沟通类型可被明确区分为专业-信赖型(因子1)、协作型(因子2)和控制型(因子3)等三类因子, 并被作为分流变量在之后的聚类分析中所使用。各题项均使用“李克特7级量表”进行作答, 即该沟通类型程度的强弱与得分的高低成正比。经检验, 各因子的内在信度良好。

教学模式的第二类分流变量-**非语言沟通因素**的测定,以Swan等(1985:206-9)与Sundaram等(2000:384-6)学者的研究设计为基础,将其研究中对于沟通传导过程中所涉及到的非语言性因素(如表情、动作、语气、语调、外形、服装、空间距离与空间掌控能力等)与本文的研究主旨相结合。参照先行研究并考虑到被测对象的自身特性,将非语言沟通因素划分为“肢体语言”、“辅助语言”、“空间语言”以及“外观体态”等四个方面,并通过探索性因子分析来进行降维。就非语言沟通因素的分类来看,四类因素被有效收敛为一个共同因子,即整体性的非语言沟通因素,最终成为一个整合性的分流变量,且该因子的信度值良好。

4. 处理

本研究通过内部同质性分析与描述性统计来掌握数据的信度及被测对象的一般特性；使用因

三 结 论：分析结果及论旨]

首先,以沟通类型与非语言沟通因素为分流变量,可将教师的教学模式有效区分为“积极的非专业非信赖-协作型”、“消极的专业信赖-控制型”、“积极的专业信赖-协作型”以及“消极的非专业非信赖-控制型”等四类。其中“积极的专业信赖-协作型”教学模式强调沟通过程中的专业性、信赖性与协作性等特性,并拥有较强的非语言沟通因素体现力。而“积极的非专业非信赖-协作型”教学模式则为相较于“积极的专业信赖-协作型”,沟通类型中的专业性与信赖性体现相对较弱的模式。此外,“消极的专业信赖-控制型”教学模式虽然强调沟通过程中的专业性和信赖性,但相对于协作性,其更多地展现出了控制性的一面,且该模式的非语言沟通因素的表现力显弱。而“消极的非专业非信赖-控制型”教学模式相较于“消极的专业信赖-控制型”教学模式,其沟通类型中的专业性与信赖性更为薄弱。

最后,教师的教学模式被证实能够对学生的课程参与意愿起到因果关系的影响作用。其中“积极的专业信赖-协作型”教学模式能够提升被测对象的课程参与程度、课程关注度、课程态度以及整体课程参与意愿。反之“消极的非专业非信赖-控制型”教学模式则对被测对象课程参与意愿的各个层面起到了抑制甚至削弱的作用。换句话说,基于确保教学目标中的学生课程参与层面,即对于学生能够拥有较强的课程关注度、较高的课程参与程度以及良好的课程态度而言,授课人员应在课程进行过程中避免使用“消极的非专业非信赖-控制型”教学模式,通过在与学生沟通过程中所体现出的专业性、信赖性、协作性来获取沟通效果的提升,加以非语言沟通因素的辅助,更好地来对学生的课程参与意愿进行引导。

426 ● 语言学 分科 5-3

分流变量展开更进一步地梳理与补完。

其次，在所导出的四个授课模式之中，通过以学生的课程参与意愿为参照，最终得出“积极的专业信赖-协作型”教学模式为有效教学模式。然而，本文在有效教学模式得以导出的同时，亦可从国内教学的现况中发现相应的问题所在。从四类教学模式的分布来看，本研究中的有效教学模式即“积极的专业信赖-协作型”教学模式仅占总比的15%，大幅落后于其他三类教学模式。由此能够推断国内高校的多数教师仍在传统的授课模式进行教学，进而可以提出现行的教学方式或与本文中的有效教学模式相抵触的猜想，故在此建议国内高校应给予教师充分的教学动机与教学支援，督促其不断优化教学方法与教学理念，鼓励教师打破常规，而非“照本宣科”，提高教师教学的积极性。并通过对“积极的专业信赖-协作型”教学模式的活用，引导学生在学习和生活过程中日益进步、茁壮成长。

最后，本研究也存在以下几点尚待补完之处。由于受到调研时间与研究经费等因素的限制，本研究中资料收集的周期与标本选定的方式存在一定的缺陷。故建议后续研究应在条件允许的情况下合理扩展调研幅度，并在定量研究的同时适当结合观察法与访谈法等定性研究的方法，以获取更为深层的研究结果。此外，本文在研究对象的选定上没有选取教师群体，而是以学生群体为中心，致使调研内容缺乏一定的相对性，进而有可能影响到研究结果的准确度。对此，今后将在相关高校的协助下，对学生群体与教师群体实施进一步的后续调研，以确保研究的严谨性。

参考文献

- 강길홍, 김현중, 2003,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서울: 한나래.
김정옥, 정소영, 200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
김정옥, 박종무, 이희옥, 2006, “서비스 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품질지각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관리연구』, 11(2), 153-172.
이지연, 2006, “사이버강좌에서의 학습자 참여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9(4), 27-61.
차민정 외, 2010, “학습자의 수업 참여 측정도구 개발”, 『교육방법연구』, 22(1), 195-219.
홍기선, 2002, 『인간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
董永江, 2000, “研究性学习方法探析”, 『南都学坛(哲学社会科学版)』, 20(4), 113-114.
薛天祥, 2001, 『高等教育学』, 桂林: 广西师范大学出版社.
爱德华·霍尔(E. T. Hall)著, 何道宽译, 2010, 『无声的语言』,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田琳, 2009, “浅谈非语言沟通在大学生思想政治教育中的作用”, 『知识经济』, 2009年13期, 128.
陈敏, 何泽超, 1998, “高校教学方法与考试方式的探讨”, 『西南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 44-45.
焦娟妮, 2013, ““国际市场营销”课程教学沟通模式及策略设计”, 『科教文化』, 261, 90-91.
华国栋, 2001, 『差异教学论』, 北京: 教育科学出版社.
Ben-Sira, Z., 1980, “Affective and instrumental components i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170-180.
Franz, J.E., 1996. Communicating in Community: An Introduction to Social Communication. India: Logos Publication.
Goulmaris, D., M. Koutsouba, & Y. Giosos, 2008. “The Organisation of a Distance Postgraduate Dance Programme and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Specialising in Dance”, Turkish Online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9(3), 59-73.
Hrastinski, S., 2008. “What is online learner participation? A literature review”, Computers & Education 51(4), 1755-1765.
Leigh, T.W., & J.O. Summers, 2002. “An Initial Evaluation of Industrial Buyers’ Impressions of Salespersons’ Nonverbal Cues”, The Journal of Personal Selling & Sales Management 22(1), 41-53.
Littlejohn, S.W., & K.A. Foss, 2011.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IL: Waveland Press.
Mehrabian, A., & S.R. Ferris, 1967. “Inference of Attitudes from Nonverbal Communication in Two Channel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1(3), 248-252.
Norton, R.W., 1978. “Foundation of a Communication Style Constru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2), 99-112.
Ryan, A.M., & H. Patrick, 2001.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adolescents’ motivation and engagement during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2), 437-460.
Sundaram, D.S., & C. Webster, 2000. “The Role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Service Encounters”, Journal of Service Marketing 14(5), 378-389.
Swan, J.E., I.F. Trawick, & D. Silva, 1985. “How Industrial Salespeople Gain Customer Trust”,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14(3), 203-211.
Wainwright, G.R., 2011. Understand Body Language. UK: Hodder & Stoughton.

2017 年度韩国中语中文学秋季聯合国际学术研讨会

적은날 : 2017년 11월 6일

떠난날 : 2017년 11월 8일

발행처 : 韩国中语中文学会, 延世大学中语中文学科

도서
출판 **學古房**

전 화 : 02-353-9908(대표), 02-356-9903(편집부)

팩 스 : 02-6959-8234

E-mail : hakgobang@chol.com

Http://hakgobang.co.kr

